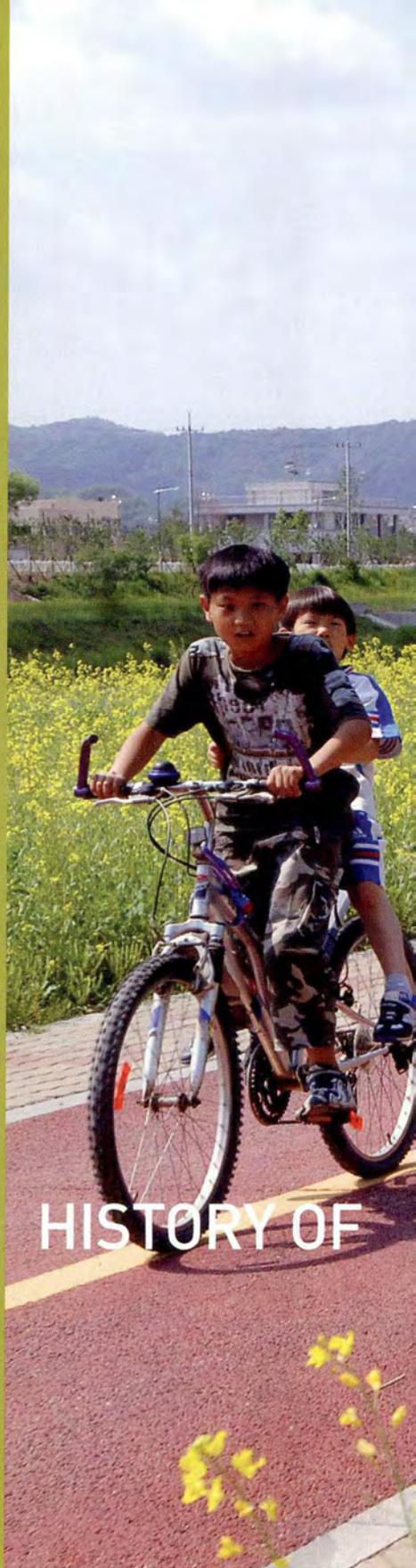

제5장 언어

- 제 1 절 개관
- 제 2 절 조사 개요
- 제 3 절 동두천 지역 어휘체계의 특성
- 제 4 절 동두천 지역 언어의 문법체계
- 제 5 절 동두천 지역 언어의 음운체계
- 제 6 절 동두천 지역 언어의 특성

DONGDUCHEON HISTORY OF





30 YEARS 1981-2011

東豆川市30年史

1) 이승녕, 『한국방언사』,
『한국문화사대계』 V, (1967).
411쪽 참조

제1절 개관

각 지역마다 고유의 풍습이 있듯이 언어 또한 특색이 있다. 이렇듯 지역에 따라 다른 언어들에 지역 언어 또는 방언이라고 한다. 현 시대는 방송 매체의 비약적 발전시대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언어의 통합화가 암묵적으로 진행됨으로써 각 지역 언어의 특색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상태이다. 사람들의 삶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변화를 안타깝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변화의 단계마다 무엇이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었는지를 충실히 기록해 두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것들 하나하나가 그 시대를 산 사람들의 정신이 켜켜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동두천 지역 언어는 중부방언권, 보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방언권에 속한다. 지역에 따라 다른 말을 방언이라고 하며, 그 특성이 다른 지역들과는 구별되면서 그들 사이에는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인접 지역들을 묶어 방언권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크게 여섯 개의 방언권, 곧 서북방언(평안도)·동북방언(함경도)·서남방언(전라도)·동남방언(경상도)·제주방언(제주도)·중부방언(경기, 충청, 강원) 등으로 구분된다.

중부방언 중 경기방언은 대략 해안, 도서 지역과 남부 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¹⁾ 이에 견주어 보면 동두천방언은 경기방언 가운데 내륙 북부 지역 방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동두천방언은 넓게는 국어 표준어 토대가 되는 서울말과 같은 방언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큰 테두리에서는 표준어와 그리 달라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현재 동두천 지역은 지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서울과 큰 차이가

없는 표준어 권이고, 상당수의 외지인이 유입된 지역이다.

또한 교통수단의 발달, 방송매체의 급속한 확충과 보급으로 인한 지역 간의 교류와 의사소통이 활발해지면서 방언 간 차이가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동두천방언도 분명히 그 독자성을 가지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예를 들어 ‘벧가리[벧가리]’는 동두천방언이 인접 포천이나 의정부와 일치하지만, ‘나:중(의정부), 야중(남양주), 난중/냥중(동두천)’에서는 세 지역의 방언이 서로 다르다. 이러한 동두천방언의 독자성이야말로 동두천 지역 언어의 살아있는 전승이라 할 것이다.

동두천 지역 방언을 조사 분석함에 있어서, 개별방언 기술학의 방법론²⁾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동두천 지역의 토박이들이 사용하는 어휘를 중심으로 표준어와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어휘체계, 음운체계, 문법체계의 특성을 밝혀 정리하는 것에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2) 방언연구 방법론은 방언 지리학과 개별방언 기술학으로 양대별된다. 전자가 인접방언간 차이와 역사적인 변천과정을 중요시하는 반면, 후자는 하나의 완전한 지역 언어로서 공식적인 언어체계-음운체계, 형태체계, 통사체계 등을 밝히는 것을 중요시한다. 임용기, “광주말의 도움, 이음, 특수토씨”, 『기전문화연구』 18집, (인천교대기전문화연구소, 1988), 233 - 4쪽 참조

-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편,
『한국방언조사설문지』, (1989)
- 2) 자료조사는 2010년 7월 20일
부터 7월 25일까지 실시했다.
- 3) 어문연구실편,
『한국방언자료집』 1 (경기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제2절 조사 개요

한 지역의 방언을 조사함에 있어서 제보자 선정기준은 매우 중요하다. 그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를 가급적 그대로 채록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본 조사 제보자의 선정기준을 동두천지역에서 3대 이상 세거한 분, 치아가 건강한 분, 연세가 70대 이상인 분으로 하였다. 이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인물인 김문규(72세, 남, 동두천시 생연2동 823-91) 님을 통해 제보 받았음을 밝혀 둔다.

조사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방언 종합 질문지인 「한국방언조사 질문지¹⁾」를 이용하여, 농사·음식·가옥·의복·인체·육아·인륜·경제·동물·식물·자연·상태·동작 등 모두 13분야의 생활 어휘를 조사하면서²⁾ 한국방언자료집³⁾에 수록되어 있는 양주 지역 방언과 대조하면서 기록하였다.

제3절 동두천 지역 어휘 체계의 특성

동두천 지역 방언의 어휘 체계 특성은 전술한 바와 같이 생활 어휘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표준어와 병행하여 자료를 수록하였으며, 형태소의 결합관계나 형태소의 변이형이 나타나는 것은 그 변이형을 수록하였다.

지역 방언을 전사(轉寫)함에 있어서는 국제음성기호로 표기하는 것이 그 음가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겠으나, 이 글의 성격상 한글로 표기하였다. 한 형태소의 여러 변이형이 쓰일 경우에는 빈도수에서 어느 것이 우세하게 쓰이는가를 제보자에게 질문하여 우세한 것을 '동두천방언형1'로, 그렇지 않은 것을 '동두천방언형2'로 표기해서 함께 쓰이는 방언들을 함께 기술하였다.

1. 농사 관련 어휘

표준어	동두천방언형1	동두천방언형2
벼	베	
누	눠	
볍씨	벵씨	
김매다	김맨다	짐맨다
새참	새밥	
보습	보십	
써레	쓰레	
쇠스랑	쇠시랑	
벧단	벧단	
벧가리	벧가리	
짚	집	
꼬다	꼰다	꼬지
광주리	광우리	
바구니	소코리	

절구공이	절구괭이	
디달방아	디달뿡아	
방앗공이	방앗괭이	
맷돌	맷돌	
겨	계	
왕겨	왕계	
어레미	얼레미	
보리	버리	
감부기	까뽀기	
발두둑	발두덕	발두더기
발고랑	발골창	
밭이랑	이랑 (두덕과 같다고 함)	
수수잎	수수잎새	
옥수수	옥쭈수	옥수꾸
사다(곡식)	팔다	
팔다(곡식)	사다	
무	무수	
무말랭이	무말랭이	
시래기	시래기	씨라구
고쟁이	고괭이	

2. 가옥 관련 어휘

표준어	동두천방언형1	동두천방언형2
자물쇠	자물통	
열쇠	열췌	
마루	마루	말루
미닫이	미다지	
여닫이	여다지	
흙손	흑손	
지붕	지방	
기와집	개와집	
이영	이영	
용마름	용구새	
초마	초마	
고드름	고드렴	
담	담장	
뜰	대뜰	
뒤꼍	뒤란	
변소	두간	뒷간
우물	샘	
두레박	두레박	두래박

3. 음식 관련 어휘

표준어	동두천방언형1	동두천방언형2
깍두기	깍뚜기	
오이소박이	오이소백이	
가마	가마솥	
조리	조래미	
누룽지	누룽갱이	
눌은밥	누름밥	
송농	송녕	
가래떡	한떡	
백설기	흰무리	
밀기울	밀지울	
국수	국시	
고명	괴명	
새알심	새심이	
과줄	악과	뽕튀기
튀밥	강정	
시루번	시루벤	
두경	뒤	
바가지	바가치(큰 것)	쪽빡(작은 것)
아궁이	아궁지	
부뚜막	부뜨막	
부지갱이	부지강이	
참숯	참숯	
화로	화루	
부젓가락	화젓가락	발두더기
석쇠	석수	

4. 의복 관련 어휘

표준어	동두천방언형1	동두천방언형2
다듬잇돌	다듬미돌	다들미돌
두루마기	두루매기	
잠방이	잠벙이	말루
누더기	누데기	
나막신	나막신	
흔수감	채단	
흙웃	고껏	
재봉틀	자방틀	

가위	가새	
반짚고리	반짚그릇	
목화	목하	
씨앗	씨아	
누에	누에	
고치	뉘꼬치	
번데기	뵤데기	

5. 육아 관련 어휘

표준어	동두천방언형1	동두천방언형2
갓난아이	갓난애	어린애
여자아이	계집애	기집애
남자아이	사내	
죄암죄암	참참	잼잼
따로따로(따따로)	따다루	
버릇	버르장머리	
엄살	옴살	
샘	새암	
사금파리	새금파리	
소꿉질	소꿉장난	
숨바꼭질	술래잡기	
쥐불놀이	쥐불로리	

6. 인체 관련 어휘

표준어	동두천방언형1	동두천방언형2
턱수염	턱썩염	
콧수염	콧썩염	
구레나룻	구렛나루	
얼굴	낫	
뺨	뺨	벌(서로 같은 것이라 함)
볼	벌	벌따구니
검은자위	검먼동자	까먹자위
흰자위	흰동자	
눈두덩	눈뚜덩	
눈곱	눈꼽	
다래끼	다락찌	
소경	쇄경	장님

애꾸	애꾸눈	외눈백이
콧구멍	콧구녕	
입술	입설	
혀	쇠	혓바닥
귓볼	귀볼이	
오른손	바른손	
손가락	손끼락	손꾸락
겨드랑	겨드랑이	
배꼽	배꼽	
가부좌	책상다리	
엉덩이	엉덩이	응덩이(허리아래)
넓적다리	허벅다리	
무릎	무릎	무루딱
오금	오금	
정강이	정갱이	
복시뼈	복송뼈	
부스럼	부시럼	헌디
두드러기	두드래기	
주근깨	주궁깨	
언청이	언챙이	
딸꾹질	따꾹질	
트림	게트림	트림
기지개	게지개	

7. 인륜 관련 어휘

표준어	동두천방언형1	동두천방언형2
어미	에미	
아범	애비	기집애
아우보다	아수보다	동생보다
며느리	메누리	
처녀	처자	
새색시	새덕	새색시
시누이	애기씨(손아래)	형님(손위)
매부	매형(자형)	매저(손아래)
도련님	데련님	
할아버	할애비	
남	넙	

8. 경제 관련 어휘

표준어	동두천방언형1	동두천방언형2
이야기	애기	
마을간다	마실간다	
가게	가개	
거스름돈	거시름돈	
덤	듬	
대장간	대장간	상냥간
벼리다	베리다	
바퀴	바꾸	
마리	필	
포기	피기	
자루	가락	
두름	두름	드름
꾸러미	꾸레미	

9. 물고기 관련 어휘

표준어	동두천방언형1	동두천방언형2
고기	괴기	
생선	바다고기	
미끼	눅시밥	미끼
지느러미	나래미	
창자	창채기	
미꾸라지	미꾸리	
피라미	피래미	
개구리	깨구리	깨구락지
갈치	칼치	
우렁이	우렁이	
달팽이	탈팽이	

10. 식물 관련 어휘

표준어	동두천방언형1	동두천방언형2
봉선화	봉송아	봉송아
도깨비비늘	도깨비바늘	
덩굴	녕굴	
질경이	질쟁이	
쌈바귀	쌈바귀	
고들빼기	고들빼기	고들파기
개암	가암	
아그배	아구배	
껍질	껍줄	
도토리	도토리(상수리)	가도토리(도토리)
그루터기	등거리	
삭정이	삭쟁이	
솔가리	솔까래	

11. 자연 관련 어휘

표준어	동두천방언형1	동두천방언형2
산마루	산봉우리(뽕족한 곳)	산마루 (높이올라가서평평한곳)
기슭	도깨비바늘	
덩굴	기실	중턱
묘	모이	
언덕	번덕	
비탈	비알	까까비알
벼랑	낭떠러지	
메아리	산울림	
바위	바우	
모래	모새	
이끼	니끼	
해거름	해질무렵	
이슬비	이실비	
가랑비	가는비	
소나기	소내기	
가을	갈	
회오리바람	회리바람	
먼지	몬지	
아지랑이	아지랑이	
윗마을	움말	
모퉁이	모퉁이	

12. 상태 관련 어휘

표준어	동두천방언형1	동두천방언형2
짧다	짤다	
높다	놉다	
넓다	널다	
없다	읍다	
담다	담다	
다르다	달르다	

13. 동작 관련 어휘

표준어	동두천방언형1	동두천방언형2
먹이다	먹이다	멕이다
젓는다	바다고기	
줄까요/주어라/드려라	줄까요/쥐라/드려라	
흙쳐라/뒹아라(먼지를)	흙쳐라	
맡기다	기다	
나누다	갈르다	논다
훑는다	훑넌다	
치우다	치다	
만들다	맨들다	
자르다	자른다	
맞추어진다	맞춰진다	
메었다(목이)	미었다	
놀라다	놀래다	
토라지다	토라지다	빼치다
벗긴다(겹질을)	벳긴다	

제4절 동두천 지역 언어의 문법체계

1. 대명사

표준어	동두천방언형1	동두천방언형2
누구나	누구니	
자기가	지가	
나에게	나한테	내게
너희	니들	

2. 조사

표준어	동두천방언형
돼지를	돼질
여우와	여우허구
나와	나허구
보리는	보린

3. 경어법

표준어	동두천방언형1	동두천방언형2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십시오
가시지요	가세요	가십시오
큰다	자란다	
무엇이나	뭐야	

4. 시제

표준어	동두천방언형1	동두천방언형2
좋겠다	좋겠다	
왔었니	왔등가	왔었나
오겠더라	오겠드라	
작았던	작든	

5. 사동, 피동

표준어	동두천방언형
빨게 해라	빨개 해라
쓰게 해라	쓰개 해라
만져진다	만쳐진다
기다려진다	기달려진다

6. 연결어미

표준어	동두천방언형
오면	오른
때문에	땜에
뒤라구	머라구
갔다고	갔다구

7. 보조용언

표준어	동두천방언형
쌌나 보다	쌌나 부다
싫어서	싫어서
울까 봐서	울까 바서
생각하지 않았다	생각지 않았다

8. 부사

표준어	동두천방언형
천천히	천천이
나중에	나중
하마터면	하마트라문
어떻게	으트개

2. 음운 변화

1) 전설모음화 현상

후설모음 ‘ㅡ’가 ‘ㅅ, ㅆ, ㅈ, ㅊ, ㅍ’ 다음에서 전설모음 ‘ㅣ’로 실현되는 전설모음화 현상이 아래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부스럼>부시럼	다듬잇돌>다딤이돌	씀바귀>쌌바귀
이슬>이실	스물>시물	쓸다>썰다
말씀>말쌌	무슨>무신	슬며시>실며시
중손>징손	보습>보십	행복스럽다>행복시럽다

2) 고모음화 현상

전설모음인 ‘ㄱ’과 후설모음인 ‘ㄴ’이 첫째 음절 위치에서 고모음화 현상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즉, 아래의 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어두 음절 위치에서 장모음의 ‘ㄱ:’는 ‘이:’로, 마찬가지로 장모음의 ‘ㄴ:’는 ‘ㅡ:’로 실현된다. 이러한 현상은 한자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제발>지발	세다>시다	세숫물>시숫물
메다>미다	베다>비다	떼다>띠다
세상(世上)>시상	제사(祭祀)>지사	제일(第一)>지일
제상(祭床)>지상	제수(弟嫂)>지수	
엉덩방아>으덩방아	어째>으째	어떻다>으똥다
거북하다>그북하다	석잔>숙잔	서럽다>스럽다
없어지다>읍어지다	어른>으른	험하다>흠하다
덜먹는다>들먹는다	뺨다>뺨다	거머리>그머리
얻어오다>은어오다	거지>그지	건너다>근너다
너희>느이	형꿂>흥꿂	처녀>츠녀
선물(贈物)>순물	성씨(姓氏)>승씨	성미(性味)>승미

3) 비원순모음화 현상

원순모음 ‘ㄱ’나 ‘ㅇ’가 비원순모음 ‘ㄷ’로 변하는 비원순모음화가 아래의 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실현되고 있다. 이는 근대 국어에서 순자음 아래에 오는 비원순모음 ‘ㄱ’나 ‘ㄷ, ㅌ’가 각각 ‘ㄱ’나 ‘ㅇ’로 변하는 원순모음화에 역행하는 현상으로, 동두천지역 방언에서 나타나 주목된다.

볼>벌	본전>번전	본바탕>번바탕
본처>번처	보리>버리	오빠>어빠
입술>입설	발두묵>발두덕	너무>너머

4) 움라우트 현상

움라우트 현상(‘ㅣ’모음 역행동화 현상)은 국어 표준어에서도 상당히 널리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로서, 발음상의 노력 경계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미 18세기 후기 국어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움라우트 현상은 다음 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우리 동두천지역에서도 폭넓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꾸러미>꾸레미	엉덩이>엥텡이	두드러기>두드레기
우렁이>우렁이	피라미>피래미	만들다>맨들다
두루마기>두루매기	홀아비>홀애비	소나기>소내기
잠방이>잠뱅이	어미>에미	누더기>누데기
언청이>언챙이	아지랑이>아지랭이	며느리>메느리
방앗공이>방앗꿩이	절구공이>절구꿩이	고명>괴명
고기>괴기	구렁이>구렁이	마루터기>마루테기
찌꺼기>찌께기	다일>दै일	다리다>대리다
막히다>맥히다	먹이다>맥이다	삼타다>생기다
시루번>시루벤	삭정어>삭쟁어	누비이불>뉘비이불
깜부기>깜뵤기	포기>뵤기	오이소박이>오이소백이
아지랑이>아지랭이	난쟁이>난쟁이	미장이>미쟁이
유기장이>유기쟁이	손잡이>손쟁이	마구잡이>마구쟁이

5) 된소리화 현상

입말에서 된소리나 거센소리로 발음하려는 경향이 젊은 층에서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일반화한 현상이다. 그러나 동두천지역 방언 제보자 연령대가 70대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상당한 정도로 된소리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젊은 세대에 비하면 정도가 낮지만 현대인들의 조급한 성격을 반영하는 현상임을 생각할 때, 지양해야 할 현상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곱빼기>곱배기	소나기>쏘내기	고갱이>꼬갱이
시래기>씨래기	광>팡	계>계
세다>씨다	갈기다>깔기다	집적거리다>짹적거리다
구겨지다>꾸겨지다	족제비>쪽제비	가스>까스
싱크대>씽크대	페인트>뽕끼	보트>쁘드
새시>삿시	가운데>가운데	먼저>먼침
바가지>바가치	호박고지>호박꼬지	디딜방아>디딜뽕아

3. 자음탈락 현상

자음탈락 현상은 국어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단어 경계나 형태소 경계를 선행시키는 자음 앞의 환경에서 어간말 자음군 가운데 하나의 자음을 탈락시키는 현상을 말하여, 동두천지역 방언에서도 다음의 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삿>삭이, 삭도, 삭만	값>갑이, 갑만, 갑두
몯>목이, 목을, 목두, 목만테	닭>다이, 닥을, 닥두, 닥만, 닥한체
흙이>흑이, 흑을, 흑에다	없->읍씨, 읍찌, 읍따, 읍뜨라
얏->안저, 안찌, 안따	많->만아, 만치, 만타, 만터라
젊->절머, 점찌, 점따	닭->달마, 닭끼, 닭찌, 닭는다
뺨->발바, 밥찌, 밥떠라	넙->넙머, 넙찌, 넙따
떨->떨버, 뜰버, 뜰지	읽->읽거, 일끼, 익따, 익찌
말->말가, 말끼, 말꾸, 막따	굶->굶머, 굶찌, 굶뜨라, 굶는다

제6절 동두천 지역 언어의 특성

동두천 지역 방언의 어휘체계, 음운체계 및 문법체계를 표준어의 체계와 비교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동두천지역 방언의 문법체계는 표준어와의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어휘체계로는 어휘의 여러 특징을 규정짓기보다는 어휘 항목을 가지고 변이형태들을 조사해서 드러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어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이 발음상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며,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표준어에서 ‘곡식을 사는 것을 판다’ 고 하며 반대로 ‘파는 것을 산다’ 라고 하는 것이다. 음운체계에서는 표준어와 마찬가지로 ㄷ, ㄱ, ㅋ, ㆁ, ㆁ, ㅡ, ㅏ, ㅑ, ㅓ, ㅕ 등의 10단 모음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음운변화로는 전설모음화, 고모음화, 비원순모음화, 움라우트, 된소리, 자음탈락 현상 등이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